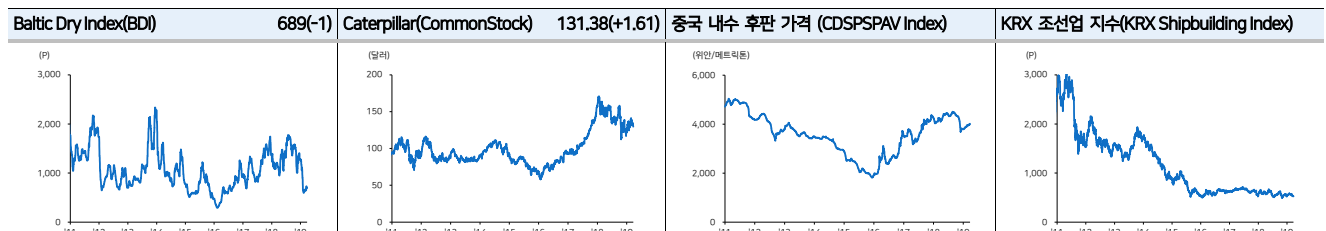


국내 주요 조선/기계 업체 Valuation

업체명	시가총액 (십억원)	외국인지분율 (%)	증가 (원)	1D (%)	1M (%)	3M (%)	YTD (%)	PER(x)		PBR(x)		ROE (%)	
								18E	19E	18E	19E	18E	19E
현대중공업	8,245.1	15.8	116,500	-7.5	-12.4	-8.3	-9.3	81.2	38.9	0.6	0.6	0.7	1.4
현대중공업지주	5,407.2	21.6	332,000	-2.4	-7.5	-3.2	-4.0	4.5	3.7	0.6	0.5	14.1	14.7
현대일렉트릭	506.9	6.0	24,900	-3.5	-22.2	14.2	12.2	2.4	2.1	0.2	0.2	9.3	9.7
현대건설기계	924.0	9.5	46,900	-3.5	-16.5	12.7	9.8	3.0	2.2	0.3	0.3	11.7	13.9
삼성중공업	5,336.1	19.1	8,470	-3.1	-10.4	12.3	14.3	53.4	26.5	0.5	0.5	1.0	1.9
대우조선해양	2,921.4	11.1	27,250	-2.5	-16.4	-20.2	-20.2	9.5	13.7	0.8	0.8	9.0	5.3
현대미포조선	2,220.8	13.0	55,600	-2.6	-11.3	-8.2	-7.3	12.0	8.7	0.4	0.4	3.6	4.8
한진중공업	126.2	3.6	1,190	0.0	N/A	N/A	-28.1	23.9	6.0	0.2	0.2	0.7	2.8
현대엘리베이터	2,243.3	22.0	82,600	2.0	-26.6	-19.5	-22.8	14.6	14.2	2.0	1.8	14.6	13.3
두산밥캣	3,022.5	25.4	30,150	-1.5	-5.6	-4.4	-4.3	11.0	10.4	0.9	0.8	7.4	7.6
현대로템	1,916.8	3.6	22,550	3.2	-19.3	-20.6	-19.0	29.1	19.8	1.3	1.2	4.5	6.3
하이룩코리아	247.1	47.6	18,150	-4.7	-3.2	10.5	10.3	8.2	7.5	0.7	0.6	8.8	9.0
성광벤드	310.3	15.7	10,850	-2.3	-0.9	-3.6	-4.8	959.1	38.9	0.7	0.7	0.1	1.8
태광	287.5	11.7	10,850	-4.0	-3.6	-6.3	-7.3	64.8	31.6	0.7	0.7	1.0	2.1
두산중공업	930.1	9.3	7,940	0.9	-4.2	-26.1	-18.4	-20.6	8.3	0.3	0.4	-0.1	3.9
두산인프라코어	1,540.4	16.8	7,400	-2.4	-6.7	-2.2	-2.5	5.1	5.4	0.8	0.7	17.7	13.9
HSD엔진	158.1	3.4	4,800	-3.5	-2.9	-9.4	-9.1	-12.6	N/A	0.7	N/A	-4.7	N/A
한국항공우주산업	3,499.4	15.7	35,900	-2.2	-0.3	13.3	12.5	52.4	23.6	3.2	2.9	6.1	13.2
한화테크윈	1,782.4	15.2	34,250	0.9	3.0	4.6	5.4	141.9	26.1	0.8	0.7	0.6	2.9
LIG넥스원	839.3	9.2	38,150	-1.3	0.0	14.5	3.2	87.8	33.2	1.7	1.4	2.4	4.4
태웅	199.3	4.1	9,960	-2.4	-10.3	-0.1	-5.1	N/A	N/A	N/A	N/A	N/A	N/A
동성화인텍	227.2	4.1	8,420	-3.1	-4.0	15.2	9.1	-17.8	19.7	3.1	2.7	-16.2	14.5
한국카본	365.3	14.6	8,310	-1.7	0.0	24.4	18.0	129.4	23.2	1.2	1.2	0.9	5.2

주: 캐피리치 업체 PER/PBR/ROE는 메리츠증권 추정치, 그 외 업체는 Bloomberg 컨센서스 수치 /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지표 및 차트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막오른 모잠비크 프로젝트...빅3, 30억불 LNG선 수주전 임박

미국 석유회사 아나다코가 해외 해운업체와 용선 계약에 대한 입찰 계획을 밝히면서 모잠비크 LNG 프로젝트에 투입될 LNG선 수주전이 시작됨. 영국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아나다코는 LNG선 16척을 발주할 계획이 있으며, 17만CBM급으로 알려졌다. 용선계약 이후 조선사들이 선정될 계획, 상반기 이후 발주가 이뤄질 전망이다. LNG선 선가상승도 기대됨. (EBN)

조선 빅3 수주 경쟁 치열...삼성중, 현대중 제치고 2위로

Clarksons Research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2월 말 기준 수주잔고는 490.3만CGT로, 현대중공업(451.5만CGT)을 제치고 세계 2위에 등극함. 1위는 대우조선해양으로 584.6만CGT의 수주잔고를 보유함. 올해 2월 기준 삼성중공업은 LNG선 7척을 수주해 수주실적 13억달러를 기록했고, 대우조선해양은 VLCC 6척, LNG선 3척에서 11억달러를 수주함. (뉴시스)

Magnolia get approval to export more LNG

미국 에너지 당국(DOE)은 루이지애나 Magnolia LNG 수출시설의 수출생산량 확대를 승인함. 수출 생산능력은 연간 880만톤까지 늘릴 수 있으며,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를 대상으로 수출해야 함. 직전 최대 생산량은 2014년에 결정되었고, 당시 대비 80만톤 증가함. Magnolia LNG는 2013년 승인 당시 연간 4백만톤에서 계속 증가됨. (Upstream)

CMA CGM confirms LNG, scrubber boxship order with CSSC

컨테이너선사 CMA CGM은 2년 후 선대 일부를 개편하기 위해 신조선 10척을 발주함. 발주한 선박은 1.5만TEU급 컨테이너선으로, 모두 중국 CSSC 조선 그룹에서 건조될 예정임. 10척 중 5척은 LNG 추진, 5척은 스크러버를 장착해 아시아-지중해 항로에 투입될 계획. CMA CGM은 2017년 9월 2.2만TEU급 LNG추진 컨테이너선을 중국에 발주함. (TradeWinds)

獨 도이치은행 · 코메르츠은행 합병협상

경영부진에 직면한 독일 최대 은행 도이치은행은 코메르츠은행과 합병 협상에 들어갔다고 발표함. 두 은행은 투기 발주 성격이 강한 선박투자조합 KG펀드 및 그리스 선주의 신조선 대출을 전개했으나, 2016년부터 시장 침체로 용선료가 지연되거나 변제계획을 검토하는 '리스 케줄'이 발생함. 두 은행은 선박 대출 채권 매각을 추진 중으로 알려졌다. (코리아슈핑가제트)

조선 · 해양플랜트 세진중공업, 석유화학 설비 시장 진출

세진중공업 GS건설과 약 242억원 규모 GS칼텍스 올레핀 생산시설 Pipe Rack Module 생산 및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힘. 총 공사규모는 2조 6,000억원으로 올해 안에 착공을 시작해 2021년 상업가동을 목표로 함. 세진중공업은 조선업체에 모를 공급하던 기술과 원가 경쟁력으로 석유화학 설비 시장에 처음 진출, 후속 공사에 대한 수주도 기대 중임. (서울경제)